벌크선박에서 산적화물 선적작업 중 선창으로 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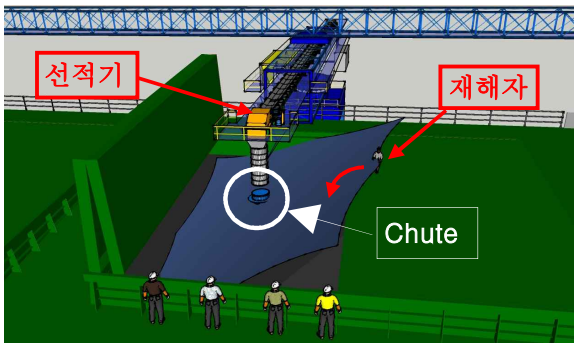
재해개요

2017년 2월 6일(월) ○○항에서 벌크선박에 크링커 선적 작업 중 벌크선박 상부 해치(hatch)에서 분진비상방지막이 떨어지며 작업자가 분진비상방지막와 같이 선박 내부(선창)으로 떨어짐

※ 크링커(clinker) : 시멘트 원료의 일부가 융해하여 괴상소결물로 된 덩어리 - 시멘트 중간재.
※ 선창(cargo hold) : 선박 내부에 짐을 싣기 위한 저장 공간

재해관련사진

< 사고발생 선박 - GT 3만5천톤급 >



< 재해발생 상황도 >

재해발생 원인

○ 선적기 Chute 연결용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선적기 Chute 낙하
○ 추락위험 장소에서 개인보호구(안전대) 미착용

동종재해 예방대책

○ 인양물의 중량물 운반에 충분한 강도의 와이어로프 사용

- 관리감독자는 하역장비의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·위험방지 조치를 실시하고 근로자가 위험해지지 않도록 조치

○ 중량물 운반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, 근로자에게 주지

○ 추락위험 장소 근로자 출입금지 및 개인보호구(안전대) 착용

- 중량물 취급 작업 전 해당 작업의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기준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계획서에 의거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

산업재해예방
안전보건공단